

<서면답변서>

○ 감 대 기 위 원(’97. 11. 27. 농촌진흥원행정사무감사시)

(질 의)

4-H회 활동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이후 4-H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농촌의 젊은 인력의 이농과 진학 등으로 4-H회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재 우리도의 4-H회원은 총 552개 조직에 12,432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 4-H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영농 4-H 조직기반조성 사업 18개소 180백만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5개소 1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 영농 4-H회원 품목별 교육,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학생 4-H회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영농 4-H회원은 영농정착의지를 갖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지금까지 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지대한데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의 지원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농촌지도자는 지역개발에 무보수로 자율참여하고 과학영농시범과 농촌후계세대의 육성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 앞으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는 작목별 전문기술을 가진 개방대응 핵심주도 세력으로서, 점차 품목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을 수용하는 회원중심으로 정예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 각종 행사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박 용 회 위원('97. 11. 27. 농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시)

(질 문)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 확충예산중 부천시에 예산이 많이 편중지원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시설추진이 지연될 경우 타용도로 예산을 전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부천시는 경지면적 1,164ha, 농업인구는 3,944명입니다.
- 현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비가 새는 등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농업여건은 부천 외곽 근교의 시설채소, 화훼(특히 국화)가 특화되어 있음.
- 부천시의 경우 경지면적, 농업인구는 적으나,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식량의 중요성 등 각종 교육기회 확대
- 학교, 유치원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현장교육,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
-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농업 발굴 보급 등 도시형 농촌지도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96년 10억원, '97년 4억원 등 총 14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그동안 청사전립을 위해 그린벨트 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농지전용 협의승인 지연, 18,513㎡('97. 4월 승인요청, 경기도)⇒10,044㎡(3,038평, '97. 11. 10.)호 협의승인완료]되었으나,
- 금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하위직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였는데, 현재 이에 대한 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하위직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 '86. 1. 1일 단일호봉제 실시이후 지도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 5회에 걸쳐 호봉을 재획정 조정한 바 있고,
- 지난 3. 21일 위원님께서 도의회에서 도정질문하신 내용을 즉각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향보고」하였음을 말씀드리고,
-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진흥청에서는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 그 내용은 단일호봉 실시 당시 진급을 고려하지 않고 호봉을 확정 하므로써 승급분이 반영되지 않아 최초임용이 같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낮은 형편임을 감안하여
- 단일호봉제 실시 당시 계급을 무시하고, 근무년수에 의한 호봉으로 재획정 조정하되 “근무년수+1”로 재획정 적용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중앙부처에서 관련안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

(질 의)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등의 운영을 별도 관리인원 없이 지도사가 담당하고 있어 본연의 지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에 과학농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 시설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관리 인력의 운용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 '92년 새정부 출범후 인력증원의 억제시책에 의거 인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도공무원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각 품목별 신 재배기술에 대한 실제적 실습을 통하여 좀더 자신감 있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과다한 노력참여, 대농민 접촉기회 축소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도에서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방침에 의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 평택시에서는 법원 자원봉사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활용, 지도사의 관리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 평택시 : 5. 27.~11. 26. 현재

479명(연인원), 1일 평균 8~10시간(하절기)

— 운영 : 잡초제거, 작목정식, 수확, 재배관리(물주기 등) 등

-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평택시의 경우처럼 타인력을 활용하여 지도사가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농기계 수리반이 20개반, 수리요원 40명, 수리차량 27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수리차량이 모두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수리차량 27대중 2대는 도원농기계 중수리반이며 25대는 시·군 농기계 소수리반에서 운행
- 시·군 농기계수리차량의 전담 운전기사는 없으며, 운전직 퇴직 또는 행정기관으로 전출 및 인원 감축시 재보충이 안 되며 전체기사를 풀제로 운영
- 이중 양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사가 절대 부족하여 농기계교관이나 기계직이 농기계수리차량을 운영
- 앞으로 농번기때는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전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 농기계 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